



[종합]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소통 리더십 주목 04



Economy

코스피	2134.65 (0.00)	코스닥	750.58 (0.00)
금리 (미국 3년)	0.811 (-0.006)	환율 (원/달러)	1200.60 (-4.10) (26일)

# 넘치는 유동성, 증시 머니무브 예탁금 50조 주도株 찾기 분주

대어 공모 끝, 청약금 반환  
우선주 광풍도 추락 마무리  
역대급 대기자금 향방 관심



## ◆'증시 대기자금' 50조원 넘어서나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주식시장 투자자예탁금은 46조339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27조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수 폭락을 계기로 개인투자자가 몰리며 약 반년 만에 20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축적됐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판 뒤 찾지 않은 돈으로 증시 진입을 위한 대기 자금 성격을

지닌다. 사상 처음으로 예탁금이 5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 예측이 많다. 공모주 시장의 최대 이벤트로 꼽혔던 SK바이오팜의 청약금이 증권계좌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SK바이오팜은 지난 23~24일 이틀간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 약 31조원을 모으며 세간의 관심을 증명했다. 이 가운데 주식 대금으로 납부된 돈은 1조원 가량에 불과하다. 나머지 30조원 이상이 투자자들에게 돌아왔다. 증시 대기

자금의 향방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 ◆우선주 끝났어도 순환매 장세 아직?

이상금등 현상을 보이며 '폭탄돌리기'로 비유됐던 우선주 광풍은 현대건설우의 추락을 끝으로 마무리된 분위기다. 4거래일 연속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던 현대건설우는 거래가 정지됐다 가 풀린 지 하루 만인 25일 전 거래일보다 29.91% 떨어진 32만 1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10거래일 연속상한가를 기록하며 지난 18일 종가 74만4000원을 기록했던 삼성중공우는 지난 26일 그때보다 반 토막 난 39만 55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보통주 실적과 상관없이 급등한 우선주의 이상현상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경기침체와 초저금리 지속, 부동산 규제대책 등으로 증시 주변 대기자금이 5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투자자들은 풍부한 유동성이 흘러갈 주식 찾기에 분주하다. 최근 세 달간 언택트(Untact·비대면)와 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로 대표되는 종목이 번갈아가면서 주도주를 형성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반등이 소외됐던 우선주나 가치주에도 유동성이 집중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최근 급등한 일부 종목은 가격 부담 구간에 들어섰다는 시각이 많다. 결국 투자자들은 강세를 이어갈 업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社告

메트로미디어 '2020 100세 플러스 포럼'  
빨라지는 고령화 시대  
리스크 관리와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15일(수) '2020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는 올해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터널이 길어지면서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고령화시대 리스크 관리와 재테크'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리스크 관리와 재테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국내의 경제전망' 기초강연과 '재테크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주식·부동산 투자전략 등 투자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국내외 경제전망을 비롯해 '가치투자'로 유명한 이재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부동산 투자전략을 제시할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리츠운용 전문가인 남궁 훈 신한리츠운용 대표 등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 행사명 : 2020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 주 제 : 고령화시대 리스크관리와 재테크
- 일 시 : 7월 15일(수) 14:00~17:00(VIP 티타임 13:40~14:00)
-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문의 및 참가 신청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동행세일' 이어가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 삼성에피스 항암제 유럽허가 임박 8.5조 종양질환 치료제 시장 진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에이빈시오' 긍정의견 획득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서 다섯번째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7년 유럽에서 온트루잔트를 출시한 이후 3년에 8조원 규모의 글로벌 종양질환 치료제 시장에 진출을 앞뒀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6일(현지시간), 유럽 의약품청(EMA) 약물사용 자문위원회 (CHMP)로부터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에이빈시오'의 긍정의견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EMA의 판매 허가 심사에 착수한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에이빈시오는 통상 2~3개월 소요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검토를 거쳐 오는 하반기 공식 판매 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이빈시오'의 오리지널 의

약품 아바스틴은 스위스로슈가 판매 중인 종양질환 치료제로, 유럽에서 전이성 대장암,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유방암 등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아바스틴의 지난 해 글로벌 시장 매출은 총 70억7300만 스위스프랑(약8조5000억원)에 달하며, 그 중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은 17억9400만 스위스프랑(약2조2000억원)으로 4분의1을 차지한다. 2018~2019년 암젠과 화이자가 먼저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해 유럽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고한승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연구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통한 암환자들의 치료 혜택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 한숨 돌린 삼성... 檢 '기소강행' 불씨 아직 남아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檢 수사심의위 결과 대응 주목

삼성이 '사법 리스크'에서 한시름을 덜게 됐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를 결정하면서다.

단, 여전히 검찰측이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파기환송심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2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수사심

의위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과반 이상이 이 부회장 기소를 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 정도가 불기소 뜻을 밝혔고 알려졌다.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으로부터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하는 등 논의를 진행했으며, 결국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회장을 계속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기 어렵게 됐다. 1년 7개월여간 수사 과정에서 꾸준히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처를 이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음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확인된 셈이다.

이 부회장도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경영 승계 작업 등 논란에 따라 재판을 2심으로 돌려

보낸 상황,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뇌물 공여 혐의도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오랜 수사로 경영 공백이 심각해지면서 이 부회장 역할이 더 컸었던 이유다. 올 들어 코로나19와 일본수출규제, 시스템 반도체 육성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한시적으로나마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